



창세기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윤형(장신대)

1. 서론

본격적으로 비판적 이성을 주로 이용한 구약성서학이 시작된 지 어언 2세기가 넘어가고 있다. 그 이전에는 성서에 대해 이런 저런 비판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18세기경 풍미하기 시작한 계몽주의 이후 성서는 이제 학문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그 첫 출발점이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였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오경의 다른 책으로 확대되고 마침내 예언서와 성문서 등 다른 책에도 파급되었다. 지금은 모든 성서가 학문적인 질문과 분석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최근 학계의 담론은 본문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 밖에 창세기는 자연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과학과 종교 사이에 벌어진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논제는 전통적인 창조론

과 찰스 다윈(C. Darwin)의 진화론이라 할 것이다. 한편 창세기는 많은 학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기에 이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모두 종합하려면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 이것을 종합하려는 시도 또한 어려웠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경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창세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도출하곤 하였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창세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간의 연구 성과를 성찰하고 종합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숙고하고자 한다. 과거의 연구 성과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성서해석 방법의 두 가지 큰 줄기인 통시적인 접근법과 공시적인 접근법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통시적인 연구 성과

이 부문은 성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소위 실사구시(사실에 바탕을 두어 진리를 탐구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선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에 어떤 연구 성과가 있었는지 창세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사비평이란 낱말은 오랜 그리스도교 시대에 비하면 그 역사가 길지 않다. 이는 유대교를 비롯하여 교회의 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성서에 대한 이성적인 질문이 허용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헐적으로 그런 질문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해석학적으로 주류를 형성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다가 정신사적으로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성서에 대한 역사적인 질문이 본격화되었고 점차 학계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 계기를 촉발시킨 성서가 바로 창세기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무래도 오랫동안 학계를 지배해왔던

벨하우젠(J. Wellhausen)의 문서가설을 빼놓으면 더 이상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그의 학설은 1세기 이상 구약 학계의 담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물론 그의 가설 또한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 이전에도 계속 논의되었던 담론들을 보다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에 그의 기여가 컸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연구들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벨하우젠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한 인물이 그런 담론을 촉발시켰는데, 장 아스트뤽(Jean Astruc)이 ‘모세가 창세기 저술에 이용한 확실한 전승들에 관한 추측들’이란 책을 통해 신명을 근거로 한 자료설을 주장하였다.¹ 그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신명의 차이(אלהים/엘로힘<하나님>과 יהוה/아도나이 엘로힘<여호와 하나님>)를 들어 두 기사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손길을 거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두 신명이 번갈아 나오는 병행적 홍수 이야기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²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거부터 인정되어 왔던 모세의 저작권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모세 또한 자신 앞에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신명과 관련하여 2015년 홍국평은 고전적인 자료비평과 편집비평의 토대인 창세기 신명 사용의 기술적 분석이란 글을 발표하였다.³ 그는 이 글을 통해 P와 E의 특징적 신명 사용의 배후에 야훼의 계시시점에 대한 특수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자료비평의 점진적 계시론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화자와

1 Horst Seebass, *Genesis I Urgeschichte(1:1-11:2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6), 16. E. Zenger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6), 90. 재인용, 아스트뤽은 신명의 교체에 근거하여 창세기를 두 개의 주요 출전 A(엘로힘)와 B(야훼)로, 또 문체와 표상세계의 차이 또는 중복기사에 근거하여 10개의 부차적인 출전들(C-M)로 구분했다.

2 장 루이 스카, 「모세 오경 입문」 (박요한 영식 옮김), (서울: 성바오로, 2009), 125-127. 원제는 J. L. SKA, *Introduction à la Lecture du Pentateuque* (Bologna: Centro Editoriale Dehoniano, 1998, 2000).

3 홍국평, “창세기 신명 사용의 기술적 분석: 화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8집 (2015년 12월), 10-39. 그는 화자와 등장인물사이의 신명 사용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등장인물 사이에 사용된 신명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한편 벨하우젠과 아스트뤼크 사이에 창세기 자료와 관련하여 연구한 여러 학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 결과⁴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벨하우젠이었다. 그는 ‘예언이 율법보다 먼저다’라는 관점에서 이전에는 고대성의 평가를 받았던 제사장계 자료를 포로기 이후로 이동시킴으로써⁵ 오랫동안 성서학계를 휘어잡을 문서가설에 그 기초를 놓았다. 이후 학계에서는 논의의 출발점에서 그의 이론을 언급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주장을 펼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카우프만(Y. Kaufmann) 등 유대인 학자들이 벨하우젠에 맞서 제사장계 문서의 고대성을 주장하면서 반대 이론을 제기했지만 학계에서 주류로 편입되기는 어려웠다.⁶ 어쨌든 가설이지만 창세기에서 세계의 원천 자료(J, E, P)를 구별해 낸 것은 구약성서학이 한 세기동안 몰두해 얻은 공동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⁷ 벨하우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료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탐구했던 헤르만 궁켈(H. Gunkel)은 창세기 형성 과정에서 구전 전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창세기 주석의 첫 제목이 창세기의 전설들(Die Sagen der Genesis)인데, 책의 첫 문장이 매우 인상적이다: 창세기는 전설들의 모음이다(Die Genesis ist eine Sammlung von Sagen).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이론을 히브리 족장들의 설화에 적용하면서 이 설화들로부

4 H. Seebass, 율글, 19-23. 벨하우젠이 가설을 발표하기 전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엘로히스트 문서, 족장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엘로히스트 문서, 예호비스트(Jehovist) 문서, 신명기 문헌으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 그것을 배열하면 E-E-J-D가 된다. Joel S. Baden,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Renewing the Documentary Hypothe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베이든은 벨하우젠 가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

5 조지프 블렌킨소프, 「모세오경 성경의 첫 다섯 권 입문」 (박요한 영식 역), (서울: 성서와 함께, 2006), 364. 원제는 Joseph Blenkinsopp, *Pentateuch* (New York: Doubleday, 1992). 다르게 보면 P의 연대추정이 벨하우젠 가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6 장 루이스 스카, 율글, 232. 이탈리아 태생 유대인인 카수토(U. Cassuto)는 문서가설을 반대하였으며, 야콥(B. Jacob) 또한 자신의 창세기 주석서를 대부분 궁켈의 창세기 주석서를 비판하는데 할애한다.

7 고든 웬햄, 「창세기」 (박영호 역), (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0). 35. 원제는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aco: Word Books, 1983).

터 고대 이스라엘의 정신세계 및 종교의 모습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⁸ 이 단계는 J문서와 E문서라는 가장 초기 자료들이 작성된 시기보다도 수세기 앞서는 시기였다. 그는 창세기의 여러 설화들이 이스라엘 주변 여러 국가들의 대중들 사이에 퍼져있었던 오래된 민담 및 전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궁궐은 창세기 11-50장을 양식상 조상들의 모험담으로 분류했다.

궁궐에 이어 창세기 및 오경을 전승사적 입장에서 분석하려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중심인물이 폰 라트(G. von Rad)다. 그는 다양한 전승들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신 26:5-9)을 중심으로 편집되면서 소위 육경(창세기-여호수아서)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⁹ 말하자면 하나의 신앙 고백이 수많은 전승들이 모이게 된 핵의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그는 창세기 12장 1-3절이 하나의 전환점을 표시한다고 보았다.¹⁰ 왜냐하면 이 순간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역사(창 1-11장)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역사로 바뀌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학자들과는 달리 마틴 노트(M. Noth)는 이런 이스라엘의 전승들이 편집된 형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이르는 네 책(소위 사경)은 외형적으로 이미 상당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으며 나중에 편집자가 거기에서 최소한도의 첨가 작업만을 했다고 주장했다.¹¹ 그는 창세기 관련 전승들이 모이도록 자석 역할을 한 주제를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보았다. 돌이켜보면 대표적인

8 로널드 클레멘트, 「구약성서 해석사」 (문동학/강성열역), (서울: 나눔사, 1994), 28-29. 원제는 R. E. Clements, *A Century of Old Testament Study* (Guildford: Lutterworth, 1983).

9 폰 라트, 「구약신학 방법론」, in: 벤 올렌버거, 「20세기 구약 신학의 주요 인물들」 (강성열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169-202. 원제는 Ben C. Ollenburger, *The Following of Old Testament Theology* (Winona Lake: Eisenbrauns, 1992). 참고, 장 루이스카, 윗글, 220-221.

10 G. von Rad, *Das erste Buch Mose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126.

11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e des Pentateuch* (Stuttgart: Kohlhammer, 1948), 268. 장 루이스카, 윗글, 226, 각주 99.

네 학자들의 비평방법은 구약성서의 문헌적 역사성에 대해 솔직하게 질문하고 점검해보려는 논리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이것이 성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시적인 문서라는 이유로 사람과 거리감이 있었던 성서를 좀 더 인간적인 성격을 가진 문헌으로 승화시킨 공도 있다. 어쨌든 많은 연구자들이 위에서 서술한 학자들의 이론적인 큰 틀 안에서 자료 및 양식의 세분화 등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간다.¹²

한편 지금까지의 역사비평 방법의 분석 결과보다 더 진보적으로 주장한 학자들이 있다. 톰슨(T. L. Thompson)은 우르로부터 떠난 아브라함의 여정은 독립적인 전승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며, 성서의 연대기들도 역사적인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후기의 신학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한다.¹³ 그는 아브라함을 율과 유사하게 신학을 위하여 만들어진 허구적인 인물로 생각한다. 반 세터스(J. van Seters) 또한 톰슨과 함께 J자료 생성 연대를 초기 곧 왕정 시대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도전했는데, 그는 J자료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 아브라함 전승의 많은 특징들이 포로기에 속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후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⁴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적인 자료 및 양식, 전승-편집가설에 기반을 두면서 과거보다 창세기를 해석하는 폭이 점점 넓어진다. 이에 1974년 베스터만(C. Westermann)은 자신의 창세기 주석에서 본문과 독자 사이에 있는 간격을 줄이

12 토마스 뢰머, 「문서, 단편 그리고 보충 사이에서: 오경연구의 상황에 대하여」, in: 「구약신학연구동향」 (민경구 역) (서울: CLC, 2016), 원제는 T. Römer u.a., ZAW 125 (Berlin: Walter De Gruyter, 2013). Christoph Levin, *Der Jahwis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13 T. L. Thompson, *Early History of The Israelite People, From the Written and Archaeological Sources* (Leiden: E.J. Brill, 1994), 119, 123, 421.

14 John van Seters, *Prologue to History. The Yahwist as Historian in Genesi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2), 4, 328. 세터스는 아웨스트를 고대 역사가로 보면서 창세기 자료와 관련하여 제사장 기자보다 그 역할이 컸다고 주장한다. John van Seters, "The religion of the Patriarchs in Genesis", *Biblica*, 61-2 (1980), 220-233. John van Seters, "Divine Encounter at Bethel (Gen 28,10-22) in Recent Literary-Critical Study of Genesi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0-4 (1998), 503-513.

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대한 학문적인 해석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그는 언어학, 역사학, 고고학, 종교사 등 다양한 학문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여 본문을 해석해 나간다.¹⁵ 여기서 더 나아가 1978년 에바흐(J. Ebach)는 창세기와 고대 헬라세계에서의 노동 및 문화에 대한 개념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¹⁶ 그에 따르면 노동이란 인간의 문화 발전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고대 헬라세계의 직업 발명가들을 근거로 문화의 기원을 분석하면서 창세기의 노동 관련 본문을 고대 근동의 문화 생성과 연관시켜 설명했다는 점에서 그의 창세기 연구는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83년 미국의 웬햄(G. Wenham)은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창세기 주석서를 펴냈는데, 그는 역사비평적인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면서 주석하고 해석하였다.¹⁷ 그리고 1992년 블렌킨소프(J. Blenkinsopp)는 창세기를 포로기 관점에서 열 개의 족보를 기준으로 분석하면서 이렇게 짜인 구조가 (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석 단서로서 유배와 귀환, 절멸과 생존이라는 주제를 설화에 새기거나 암호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⁸ 그는 제사장계의 자료(P)가 기본 원천으로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 족보적 연대기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1997년 이탈리아의 알베르토 소긴(J. Alberto Soggin)도 기존의 다양한 비평적인 저작들을 활용하면서 창세기를 해석해 나간다.¹⁹ 그리고 2001년 창세

15 C. Westermann, *Genesis BK /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94. 그는 본문 해석 작업이 오랜 해석 과정에 속한 것으로 강조하며 초기의 전승 자료와 후기의 편집 자료를 구별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주석한다. 그의 창세기 주석서는 1974년에 1권(창 1-11장), 1981년 2권(창 12-26장), 그리고 1982년 3권(37-50장)이 출간되었다.

16 J. Ebach, *Weltentstehung und Kulturentwicklung bei Philo von Byblos* (Stuttgart: Kohlhammer, 1979), 324. 저자는 이 책에서 세상과 문화 발전의 기원을 밝히는 데 고대 근동세계와 창세기를 비교 검토한다.

17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aco: Word Books, 1983). 1987년 그는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한 Genesis 16-50에 대한 주석서를 출판하였다. 참고, Gordon J. Wenham, "Genesis: an authorship study and current Pentateuchal criticis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2 (1988), 3-18.

18 조지프 블렌킨소프, *유타*(2006), 170, 190.

19 J. Alberto Soggin, *Das Buch Genesis: Kommentar* [Aus dem Ital. übers. von Thomas Frauenlob...], (Darmstadt: Wiss. Buchges., 1997).

기와 관련하여 자료와 편집 그리고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통시-공시적 접근법을 채용하여 기술한 다양한 저자들의 글들을 베닌(A. Wénin)이 모아 편집한 책이 출판되었다.²⁰ 이 책은 21세기 창세기 연구를 위한 다양한 생각들, 견해들과 제안들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모음집이다. 위의 연구물들을 보면 창세기를 해석하면서도 여전히 자료 및 양식 또는 전승사와 편집적인 측면을 나름대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창세기에 대한 다양한 비평적인 담론은 대부분 오경에 대한 논의 속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를 모두 섭렵하기에는 그 양이 매우 많아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논의 과정을 보면 대체로 몇 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우선, 바이마르(P. Weimar)와 첵어(E. Zenger)가 제시하는 오경형성 모델인데, 뮌스터(Münster) 모델이라고 한다.²¹ 이에 따르면 인물들(아브라함, 야곱, 요셉, 발람 등)과 주제 중심으로 구성된 여러 가지 파편적인 전승들이 오경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기원에 관한 자료로서 조상 이야기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관련 이야기들이다. 전승형성에서 최초의 중요한 전환점은 무엇보다 아브라함 및 야곱과 관련된 독립적 이야기들이 족보(5개)를 통해 하나의 가족사로 통합된 것이다. 이 때 요셉 이야기도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²² 이 새로운 가족사는 북쪽과 남쪽 지역, 즉 북쪽 지파들과 남쪽 지파들의 혈연적 공속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아람과 암몬, 모압과 예

20 A. Wénin, *Studies in the Book of Genesis Literature, Redaction and History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arum Lovaniensium)* (Leuven: University Press, 2001). 이 책은 고대 유대 전통에서 창세기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도 다루고 있다.

21 이 모델은 원 자료의 기원에 대해서는 단편가설을, 그 이후의 작업에 있어서는 문헌가설을 취하면서, 구경(창-왕하)의 성립과 오경분립 전까지의 작업은 보충가설을 적용한다.

22 Peter Weimar, "Erwägungen zur Entstehungsgeschichte von Gen 37",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8-3(2006), 327-353.

돔, 즉 시리아,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민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한다.²³ 이런 점에서 창세기 12-50장의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이웃 이민족들의 환경 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공동체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들을 여기에 편집해 놓았을까?²⁴ 편집적인 차원에서 이 모델은 기원전 722년 북왕국의 멸망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말하자면 두 공동체가 원래는 하나의 뿌리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창세기 전승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예루살렘 역사서(육경)가 서술되고 여기에 신명기의 영감을 받은 역사서가 결합되어 9경(창세기-왕하)이라는 대역사서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²⁵

다음은 블룸(E. Blum)의 모델인데, 이것은 창세기 설화와 출애굽 설화 전승들이 포로기까지 각기 독립된 형성사 및 전승사를 갖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 초기에 제사장계 작업을 통해 오경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블렌킨소프(J. Blenkinsopp)는 역사비평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육경의 제사장계 역사에 있어 하나의 패러다임적 인물로 보고 있다.²⁶ 즉 아브라함 이야기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에 나설 수 있는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종교적 목적을 위해 편집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23 E. Zenger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6), 101.

24 Bill Arnold, "The Holiness Redaction of the Primeval History",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9-2(2017), 483-500. 2017년 아놀드(Bill, Arnold)는 카우프만(A. Kaufmann)의 주장을 검토하며 원역사의 편집 작업에도 성전 두루마리의 저자들이 오늘날의 오경 편집과 같은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25 E. Zenger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102.

26 J. Blenkinsopp, "Abraham as Paradigm in the Priestly History in Genesi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8-2(2009), 225-241. 참고, 우진형,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창 22장 1-19절의 편집비평적 접근", 『구약논단』 32집 (2009년 6월), 132-150. 창세기 22장의 편집자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평화와 공존의 위한 가치표준을 제시한다.

블룸은 벨하우젠의 이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렌트로프(R. Rendtroff)의 이론을²⁷ 수용하고 있다. 첵어와 마찬가지로 그 또한 자료 이론에 있어 JE자료의 존재를 부인한다. 우선 그는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북왕국과 연관시키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남왕국과 연결시킴으로써 이 두 전승이 모여 하나의 조상 이야기가 생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출애굽과 모세 관련 이야기의 형성 노력을 신명기계 합성 작업의 결과로 본다. 이어서 조상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의 결합은 제사장계의 작품으로 본다.²⁸ 이것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모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을 담고 있다(창 1-신 34장). 우리의 관심사인 창세기의 합성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시작은 야곱과 에서 그리고 라반 설화의 점진적 결합이다.²⁹ 처음에는 몇 가지 개별적 전설이 있었고 이것들이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이야기로 짜 맞추어졌다. 즉 이스라엘(야곱), 에돔(에서), 아람(라반) 종족의 시조인 조상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가운데 야곱 이야기를 이웃 종족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의 기원사로 서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야곱 이야기가 결합되면서 야곱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의 생애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전승이 형성되었다(창 25-50장). 그리고 그 앞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놓이면서 하나의 포괄적인 조상 이야기가 생성된다. 그런 다음 맨 앞에 원역사(창 1-11장)를 갖다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 창조신학적인 지평을 부여했다.³⁰ 무엇보다 원역사와 관련하여 1998년 비테(M. Witte)는 편집사적 관점에서 최종 편집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의 신학에 대한 고찰 및 자료의 신학사적 상관관계를 분석한 서적을 출판하였

27 장 루이스카, 윗글, 246-250. 소위 '하이델베르크 학파'는 야웨계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28 Konrad Schmid, *Genesis and Moses Story: Israel's Dual Origins in the Hebrew Bible*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0) = *Erzväter und Exodus: Untersuchungen zur doppelten Begründung der Ursprünge Israels innerhalb der Geschichtsbücher des Alten Testament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29 E. Zenger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107.

30 윗글, 109. 이 제사장계 작품의 역사 철학은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결합으로서 이를 통해 창조주의 세상과 이스라엘의 친교의 부분과 전체라는 패러다임을 생성해낸다.

다.³¹ 이밖에 2017년 후펜(Robin B. ten Hoopen)은 블룸의 모델을 인정하며 역사 비평적인 방법으로 창세기 5장의 형성사를 연구했다.³² 결론적으로 블룸은 조상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의 결합을 통해 오경을 만들어낸 작업의 공을 제사장계의 작업으로 돌렸다. 두 모델 외에 신명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토(E. Otto)의 모델과 구경까지 분석 범위를 넓히는 크라츠(R.G. Kratz)모델³³에서도 창세기는 오경의 기원 설화로 사용된다.

통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세기에서 추출한 J문서와 E문서의 정체성이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원래부터 두 문서는 가상적인 존재일 뿐 실체는 없었다. 무엇보다 엘로힘계 자료는 처음부터 그 정체성이 희미했었다. 나아가 소위 하이델베르크 학파(렌트로프, 블룸 등)는 야웨계 문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제사장계 자료(P)의 위치는 아주 공고하다. 이제 학계에서는 두 문서를 비 제사장계 문헌(n-P)으로 부르기까지 한다. 하지만 비록 과거와 같은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학자들은 성서를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대상 본문의 출처 자료에 대해 기존의 문서설 및 그 수정 이론을 인용하고 있다.

31 M. Witte, *Die biblische Urgeschichte Redakt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 Beobachtungen zu Genesis 1,1-11,26* (Berlin: Walter de Gruyter, 1998), 328f. 비테는 편집자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즉 원역사 편집자의 의도는 자료들을 보존하고 서로 조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의도적으로 새롭게 결합시킴으로써 독자적인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32 Robin B. ten Hoopen, "Genesis 5 and the Formation of the Primeval History: A Redaction Historical Case Study",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9-4 (2017), 177-193.

33 D. N. Freedman, *The Nine Commandments* (New York: Double Day, 2000), xv, xvi. 프리드만은 창세기-열왕기하서(구경)를 일명 Primary History라고 부른다. Thomas B. Dozeman, Thomas Römer, Konrad Schmid (eds.), *Pentateuch, Hexateuch, or Enneateuch?: Identifying Literary Works in Genesis through Kings* (Atlanta: SBL Press, 2011).

3. 공시적인 연구 성과

1970년대 이후 성서학계의 해석학적 분위기는 앞에서 본 소수의 전통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서연구 방법을 채용하기에 이른다.³⁴ 즉 성서 본문의 과거에 주의를 기울이는 역사 비평적 방법보다 현재의 최종 본문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해진다. 세밀한 본문 분석을 통해 자료와 그 배경 및 전승 그리고 편집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으나, 결과적으로 구약성서를 해부만 해놓은 모양새가 되었다. 이에 대해 비관이 일면서 본문의 발전 과정보다는 현재의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학적인 중심이 옮겨졌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지금까지 해왔던 통시적인 접근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역사비평방법론이 주류를 이루었던 유럽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수용하여 본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미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올브라이트(W. F. Albright)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족장들의 몇몇 관습들을 누지에서 발굴된 법 문서들과 연결시킨다.³⁵ 영국에서는 문학적인 신비평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 방법론은 문학 본문과 그 본문을 연구하는 문학적 학문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간단하게 말해 지금까지의 연구가 ‘역사 연구’ 였다면,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는 것은 ‘문학 연구’ 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과거자료의 확인에만 치우친 역사비평방법론에 반론을 제기하며 샌더스(J. A. Sanders)와 차일즈(B. S. Childs)가 전승의 결집체로서 현재의 최종 본문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정경비평방법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차일즈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다양한 전승들을 취합한 결과물을 신학적인 공동체가 자신들의 삶을

34 노만 K. 갓월드, 「히브리성서 1 사회문학적 연구」 (김상기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5. 원제는 Norman K. Gottwald, *The Hebrew Bible A Socio-Literary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1985).

35 장 루이스카, 윗글, 230.

규정하는 정경적인 최종본문(Canon)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³⁶ 이것은 문학적인 관계망(본문 상호관계성)이 구약 성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⁷ 이것은 초기 교회의 성서해석방법과 유사하지만 정경화 이행 과정, 즉 역사 비평학에서 중요시하는 본문의 전승과정도 고려한다는 점이 그 차이점이다. 최근에는 정경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현재 본문을 읽고 생각하는 독자의 의도가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의 변화는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과 수신자 사이의 만남의 결과와 양식 그리고 그 조건들을 탐구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이에 1980년 이후 성서 해석의 방향은 독자가 해석의 주도자가 되는 공시적인 방법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것은 본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즉 저자와 그 환경 연구로부터 벗어나 본문이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⁸ 한편 정경적인 해석에 가까운 유대계 또한 카수토(U. Cassuto)와 야곱(B. Jacob)을 중심으로 앞서 논의된 역사비평 이론에 맞서 반론을 제기했다.³⁹ 이에 야곱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협의의 또는 광의의 문맥 안에서 미적이며 문학적인 형태 및 의미를 담고 있는 암시들을 고려하면서 토라의 조화로운 관련성 안에서 창세기를 해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창세기 연구는 20세기 초반에는 역사비평적인 분석이 주류를

36 브레바드 차일즈, 「구약신학」(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19. 원제는 B. S. Childs,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London: SCM, 1985).

37 Christoph Dohmen/Günter Stemberger, *Hermeneutik der Jüdischen Bibel und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Kohlhammer, 1996), 187.

38 장 루이 스카, 윗글, 298. 구조주의, 사회학, 수사학, 문학, 독자반응 비평 등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

39 B. Jaco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Verlag, 1934), 5. 그의 창세기 주석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창세기 연구에 새로운 동인을 제공했다. 카수토(U. Cassuto) 또한 자료 구분에 반대하며 자신의 창세기 주석에서 토라의 원래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 역사언어학적인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토라의 낱말들이 그것들이 기록될 당시의 독자들에게 의미한 바를 밝히려고 한다.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trans. by Israel Abraham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98), 1. 같은 유대계 주석서로서 Nahum, M. Sarna, *Genesis* (Philadelphia: JPS, 1989).

이루다가 그 후반에 들어와 공시비평적인 해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다. 이런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표된 창세기 관련 연구 결과물들을 살펴봐왔는데, 실제로 구약학계의 해석학적인 흐름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었다. 국내의 대표적 학술지들을 검토해보니 2000년대 이전에는 구약학계에서 발표된 창세기 관련 논문이 소수에 머물렀다. 이하에서 그 동안 발표된 창세기 관련 논문과 서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의 선택기준은 해석의 흐름의 변화가 시작되는 1970년대 이후 발표된 국내외 저명 저널들(SCI 또는 KCI) 중심으로 창세기와 관련하여 공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논문들을 선택하였다.⁴⁰ 우선 연구 논문 빈도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정경적인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구약 논문이 발표되기 이전인 1972년 민영진이 정경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 전승의 배경과 그 사회의 본질적인 역사성을 주장하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⁴¹ 미국의 해밀톤(V. Hamilton) 또한 역사 비평적 분석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창세기 주석을 출판했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저자의 사역과 함께 본문의 주요 내용과 구조 및 신학을 살피고 있다.⁴² 그리고 남대극은 전통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탐색한 글을 발표하였다.⁴³ 이어 강사문은 창세기를 가족이라는 개념 하에 10개

40 DBpia(학술정보포털)에서 창세기 관련 논문 약 470건을 검색한 결과 전형적인 통시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연구한 논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41 민영진, “족장의 배경과 그 사회의 해석”, 『신학논단』 11집 (1972년 6월), 159-170. 이 글에서 민영진은 역사비평 작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성서의 역사성을 간접적으로 견지하고자 한다. 이후 민영진은 오랜 시간이 지나 2000년에 과거 20세기 초반 한국에서 발견된 창세기 관련정보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 민영진, “창세기(1906/1911년): 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1)권 (2010년 4월), 5-37.

42 빅터 해밀톤, 『창세기 I(창 1-17)』 (임요한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6). 원제는 V. Hamilton, The book of Genesis(1-17)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1990).

43 남대극, “창세기 1:1의 번역과 의미”, 『구약논단』 1(2)집 (1996년 12월), 7-23.

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가정 이야기’로 서술하였다.⁴⁴ 이 책은 창세기를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석한 점이 돋보인다. 1998년과 2000년에 장석정은 성서 본문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가지고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2회에 걸쳐 해석한 글을 발표하였다.⁴⁵ 한편 최종진은 정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구속사적 씨 흐름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족보를 분석한 글을 발표하였다.⁴⁶ 특히 그는 시작의 원인과 방향과 구체적 과정이 족보라는 문학적 형식을 통해 주의 깊게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김희권도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창세기 강해를 시도하였는데,⁴⁷ 그는 현재 본문을 읽는 독자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정경적인 시각에서 본문에 접근한다. 그리고 가톨릭교에서도 박요한 영식이 창세기 주석서를 출판하였는데, 그는 의미 단락의 문학 양식과 구조에 대해 기술한 다음 본문의 구조에 따른 주석을 시도하였다.⁴⁸ 오원근 또한 정경적인 관점에서 창세기에 나타난 성결사상이란 글을 발표하였다.⁴⁹ 독일에서는 에바흐(J. Ebach)가 요셉 이야기(창 37-50장) 주석을 펴냈는데, 그는 최종 본문에 주목하면서 그 안에 나타난 언어, 문학, 역사, 신학적 관심사에 유의하면서 주석한다. 나아가 본문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그 영향사까

44 강사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가정 이야기」(서울: 한국성서학 연구소, 1998). 그는 성서를 연구할 때 공식적인 방법도 사용하지만 더 깊은 이해를 위해 통시적인 방법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 David L. “Petersen, Genesis and Family Valu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4/1(2005), 5-23.

45 장석정, “가인과 아벨 이야기 I (창 4:1-8) : 본문 구성분석(Composition Analysis)”, 「구약논단」 1(5)집 (1998년 10월), 5-24. 장석정, “가인과 아벨 이야기 II (창세기4:9-16)”, 「구약논단」 1(8)집 (2000년 6월), 33-57. 그는 성서본문(Text)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외에도 그 기록된 글자들이 궁극적으로 지시해주고 있는 개념(Concept)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46 최종진, “창세기의 족보적 이해”,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15(1)집 (1998년 9월), 469-506.

47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 오경 1」(서울: 대한기독교교회회, 2005).

48 박요한 영식, 「창세기 1(1-25), 2(25-50)」(서울: 성서와 함께, 2006).

49 오원근, “창세기의 성결사상”, 「구약논단」 13(4)집 (2007년 12월), 10-29. 오원근, “오경의 정경적 관점으로 본 아브라함 언약고찰”, 「구약논단」 22(3)집 (2016년 9월), 41-75.

지 탐색한다.⁵⁰ 소넥(K. Sonck) 또한 정경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플라톤의 생각을 빌려와 심미적인 해석학을 통해 창세기 21장 1-21절을 해석한 책을 출판하였다.⁵¹ 천사무엘은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아브라함의 역사적 정체성 논의 연구’라는 글을 발표하였다.⁵² 2011년 윤형은 정경적인 관점에 ‘창세기 원역사에 나타난 노동과 주권(창 1-11장)’이란 글을 발표하였는데, 그는 노동이란 주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됨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있다.⁵³ 그는 하나님 또한 노동하는 존재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관념론적인 하나님 상을 수정시키고 있다. 배희숙 또한 정경적인 관점에서 요셉 이야기에 나타난 르우벤과 유다의 모습을 관찰하고 해석한 글을 발표하였다.⁵⁴ 하경택도 동일한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 대해 주석

-
- 50 J. Ebach, *Genesis 37-50* (Freiburg: Herder, 2007). 주석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수없이 많은 작은 연결고리들과 반복되는 표현들인데, 이것이 37-50장들을 창세기 앞부분과, 이후의 모세의 책들과 전 히브리 성서를 연결시킨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가피하게 부모와 조상들의 경험들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 51 Krzysztof Sonck, *Truth, Beauty, and Goodness in Biblical Narratives: A Hermeneutical Study of Genesis 21:1-21* BZAW 395 (Berlin: de Gruyter, 2009).
- 52 천사무엘, “아브라함의 역사적 정체성 논의 연구”, 『구약논단』 32집 (2009년 6월), 151-166. 저자는 아브라함의 역사성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이지만 창세기와 구약의 다른 본문을 비교 검토하면서 더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해 김윤이 또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문학·역사적으로 정경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글을 발표하였다. 김윤이, “아브라함 전승에 나타난 사라 죽음의 의의”, 『구약논단』 15(1)집 (2009년 3월), 88-112. 같은 해 한동구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한 아브라함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 한동구, “아브라함의 후손 : 아브라함 전승의 다문화적 해석”, 『구약논단』 15(1)집 (2009년 3월), 10-31. Jonathan Grossman, *Abram to Abraham: A Literary Analysis of the Abraham Narrative* (Bern: Lang, 2016). Carol Bakhos, *The Family of Abraham: Jewish, Christian, and Muslim Interpret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 53 윤형, “성경의 원역사에 나타난 노동과 주권(창 1-11장)”, 『구약논단』 41집 (2011년 9월), 136-157. 이외에도 저자는 2012년, 2013년, 2016년 정경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윤형, “노동의 기원”, 『Canon & Culture』 6집 (2012년 4월), 69-95. 윤형,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117-143. 본 논문은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단선적인 관점을 보완시킨다. 윤형, “구약성서 관점에서 본 문화의 생성과 발전(창 4:17-26)”, 『Canon & Culture』 20집 (2016년 10월), 219-247.
- 54 배희숙, “요셉 이야기에 나타난 유다와 르우벤”, 『장신논단』 43집 (2011년 12월), 35-57. 저자는 2017년 동일한 관점에서(성서문맥과 언어적 분석) 창세기 관련 논문을 또 발표하였다. 배희숙, “하나님의 형상과 땅의 통치(창 1:26-28): 인간의 본질과 과제에 대한 새 관점”, 『장신논단』 49집 (2017년 6월), 61-83. 이 글에서 저자는 폭력성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하나님

적으로 고찰한 글을 발표하였다.⁵⁵ 이 밖에 2013년과 2017년 하경택은 같은 관점에서 창세기 본문을 연구하여 책을 펴내었다.⁵⁶ 그는 본문이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여 본문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창세기 본문이 구약성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서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약 성서의 수용을 통해 알아내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본문을 주제로 삼은 그림들을 소개함으로써 현대 사람들에게 구약 성서 본문이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고 해석되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시각적인 그림 자료들을 활용한 점이 매우 독특하다. 동일한 관점 하에 배정훈도 말씀전승과 현존전승 읽기로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생태 신학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⁵⁷ 한편 정중호는 ‘18세기 이전 창세기 해석의 역사’라는 색다른 논문을 발표하였다.⁵⁸ 그는 여기서 18세기 이전에도 천주교 신부가 작성한 교리서와 과학기술서인 ‘성교요지’와 ‘주교요지’ 그리고 천주교 비판서에서 창세기를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해석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학자들은 대체로 성서에 대해 정경적 관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요인으로 교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성서 본문의 문학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접근법⁵⁹ 또한

형상 개념과 통치 명령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 55 하경택,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창세기의 ‘이스마엘 본문들’에 관한 주석적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권 (2012년), 5-33. 이 외에도 저자는 동일한 방법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다. 하경택, “아브라함의 소명과 이스라엘의 사명-창세기 11장 27절-12장 20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장신논단』 41집 (2011년 7월), 35-62. 하경택, “원역사안에서의 바벨탑 이야기-창세기 11장 1절-26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장신논단』 44집 (2012년 12월), 57-83. 하경택, “요셉 이야기 안에서의 아굽의 축복: 창세기 49장 1-28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장신논단』 46집 (2014년 3월), 37-66.
- 56 하경택, 『정경적 관점에서 본 창세기 1』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3년). 하경택, 『정경적 관점에서 본 창세기 2』 (서울: 킹덤북스, 2017).
- 57 배정훈,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본 생태 신학”, 『Canon&Culture』 6(2)권 (2012년 10월), 21-50.
- 58 정중호, “18세기 이전 창세기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52집 (2014년 6월), 12-40.
- 59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revised edition (New York: Basic Book, 2011), Yairah Amit,

그 빈도수가 높는데, 1981년 로스(Allen P. Ross)가 문학적인 관점에서 고대 근동 자료와 비교하며 분석한 창세기 10장의 세 번째 족보와 창세기 11장의 민족 분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⁶⁰ 이후 토이겔(L. M. Teugels)도 문학적인 시각에서 창세기 24장의 이야기 문맥을 고려하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관찰하면서 분석한 글을 발표하였다.⁶¹ 마찬가지로 노세영도 문학적 기술과 언어의 사용 등을 살펴보는 공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2-3장에 나타난 땅의 창조에 대해 해석한 글을 발표하였다.⁶² 독일의 그뤼베르크(K. N. Grüneberg)도 언어학을 이용하여 창세기 12장 3절 하반부에 나타난 축복이란 히브리 낱말의 해석문제를 다룬 글을 발표하였다.⁶³ 정석규 또한 문학적인 해석의 일환으로 최종 본문의 구조와 짜임새에 관심을 기울이며 창세기 16장을 해석한 글을 발표했다.⁶⁴ 김도형도 문학비평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창세기 37장의 요셉 이야기 첫 부분을 해석하고 있다.⁶⁵ 그는 본문이 자료의 결합체라기보다 문학적인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호지(B. C. Hodge)는 신학적 의미에 관심을 두면서 창세기 1-11장에 나타난 시간문제를 고대 근동문맥 안에서 문학적 읽기를 통해 분석한 글을 발표하였다.⁶⁶

Reading Biblical Narratives: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2001).

- 60 Allen P. Ross, "Studies in the Book of Genesis: pt 3, the table of nations in Gen 10-its content; pt 4, The dispersion of the nations in Gen 11:1-19", *Bibliotheca sacra* 138 (1981), 119-138.
- 61 Lieve M. Teugels, "'A Strong Woman, Who Can Find?' : A Study of Characterization in Genesis 24, with some Perspectives on the General Presentation of Isaac and Rebekah in the Genesis Narrative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19(1994), 89-104.
- 62 노세영, "창세기 2-3 장에 나타난 아다마(땅) 창조에 대한 한 이해-아다마(땅)와 에레즈(땅)와의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20(1)집 (2001년 4월), 5-20.
- 63 K. N. Grüneberg, *Abraham, Blessing and Nations: A Philological and Exegetical Study of Genesis 12:3 in Its Narrative Context BZAW 332* (Berlin: de Gruyter, 2003).
- 64 정석규, "창세기 16장의 구조분석적 해석", 「구약논단」 13집 (2007년 3월), 31-51.
- 65 김도형, "르우벤과 유다의 발언에 대한 문학비평적 분석: 창세기 37장 21-22, 26-27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7집 (2011년 12월), 86-104. 김도형, "이삭가족 내러티브(25:19-37:1)의 문학적 구조와 스토리텔링", 「구약논단」 74집 (2019년 12월), 221-252.
- 66 B. C. Hodge, *Revisiting the Days of Genesis: A Study of the Use of Time in Genesis 1-11 in the Light of its Ancient Near Eastern and Literary Context* (Eugene: Wipf & Stock, 2011).

2013년 반 볼드(E. J. van Wolde)는 특히 언어학적인 관점을 갖고 창세기 9장 8-17절에 나타난 무지개에 대해 해석한 글을 발표하였다.⁶⁷ 볼드와 유사한 관점에서 홍국평은 히브리어 동사 형태론(베-X-카탈 구문)과 장면교차 기법을 사용하여 창세기 27장을 해석하는 흥미로운 글을 발표하였다.⁶⁸ 이어 하계상은 공시적-문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창세기 5장 1-3절의 한글 번역과 기능에 대한 고찰이란 글을 발표하였다.⁶⁹ 근래에 유윤종은 문학적인 관점에서 창세기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 대구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⁷⁰ 이처럼 정경적인 접근법과 아울러 문학적인 관점에 바탕을 둔 논문들도 꽤 발견된다.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연구들은 빈도수가 많지 않지만 흥미로운 분야이다. 앞선 문학 비평적 관점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본문을 관찰하면서 봄머샤인(Thomas E. Boomershine)이 수사비평적 관점에서 창세기 2-3장의 구조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다.⁷¹ 국내에서는 유연희가 전형적인 공시방법인 수사비평과 이데올로기 비평방법에 의거 창세기 27장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

-
- 67 Van Wolde E. J., "One bow or another?: a study of the bow in Genesis 9:8-17", *Vetus testamentum* 63-1 (2013), 124-149.
- 68 홍국평, "창세기 27장의 장면전환기법 분석을 통한 베-X-카탈 구문의 기능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75집(2014년 3월), 379-407.
- 69 하계상, "창세기 5장 1-3절의 한글번역과 기능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58집 (2015년 12월), 40-73. 저자는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2016년과 2019년에도 공시적/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글을 발표하였다. 이충열, 하계상, "창세기 2장 5-6절의 번역/해석 및 기능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22(3)집 (2016년 9월), 76-104. 하계상, "창세기 2-3장의 히브리어 이름, 이름, 예음 : 그 의미들과 번역들, 그리고 그 절묘한 언어 유희의 의도", 「구약논단」 19(4)집 (2013년 12월), 144-171. 하계상, "신경론적 관점에서 본 아케다(the Aqedah) : 최종 형태의 본문으로서의 창세기 22장 1-19절 새로 읽기", 「구약논단」 20집 (2014년 12월) 90-126. 하계상, "노아의 만취와 그 관련사건(창 9:20-27)에 대한 재고", 「구약논단」 74집 (2019년 12월), 136-159.
- 70 유윤종, "창세기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대구어의 문학적 역동성과 한글 번역", 「Canon & Culture」 12(2)권 (2018년 10월), 77-104. Jan P. Fokkelman, *Narrative Art in Genesis: Specimens of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is* (Assen: Van Gorcum, 1975).
- 71 Thomas E. Boomershine, "The structure of narrative rhetoric in Genesis 2-3", *Semeia* 18 (1980), 113-129.

다.⁷² 이은우 또한 수사비평적 관점을 갖고 창세기 1장 본문에 나타난 수미쌍관, 이사일의 어법(hendiadys) 그리고 교차배열법 등 다양한 수사법적 구조 분석을 통해 창조 세계에 나타난 책임적인 생명 윤리를 모색하고 있다.⁷³ 그리고 1973년 트리블(Phyllis Tribble)은 그 당시로서는 색다른 접근법인 여성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2-3장을 다시 읽은 논문을 발표하였다.⁷⁴ 국내에서는 이회학이 이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분석한 글을 발표하였다.⁷⁵ 이 이외에도 한국 여신학자 협회에서 여성 신학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논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⁷⁶ 한편 예(Gale A. Yee)라는 학자는 성(gender)과 계급(class)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관점을 갖고 창세기 2-3장을 해석한 글을 발표하였다.⁷⁷ 우택주 또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바벨탑 기사를 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⁷⁸ 2007년 메팅커(Tryggve Mettinger)는 에덴 이야기에 나타난 모순점과 문제점들을 이야기 비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종 본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⁷⁹ 그 밖에 브레포드(S. Brayford)가 쓴 칠십

72 유연희, “내가 어찌 한 날에 너희 둘을 잃으랴? : 수사비평과 이데올로기 비평으로 읽는 창 27장”, 「구약논단」 16집 (2004년 4월), 263-291.

73 이은우, “창세기 1:1-2:4a의 수사적 구조에 나타난 생태윤리”,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10-34. 그는 본문에 나타난 질서 있고 체계적인 문학적 구조를 통해 창조주 또한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다고 보며, 인간은 이런 수사적 명령을 수용하여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74 Phyllis Tribble, “Eve and Adam: Genesis 2-3 Reread”, *Andover Newton Quarterly* 13-4 (1973.3), 251-258. Tamara Cohn Eskenazi and Andrea L. Weiss (eds.), *The Torah: A Women's Commentary* (New York: URJ Press, 2007).

75 이회학,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다시 읽는 ‘아브라함-사라 이야기’”, 「구약논단」 19(3) (2013.9), 14-41.

76 배영미, “창세기 2-3장에 대한 해석사 연구-생태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여성신학」 37(1999.3), 58-70.

77 Gale A. Yee, “Gender, class, and the social-scientific study of Genesis 2-3”, *Semeia* 87 (1999), 177-192. Karalina Matskevich, *Construction of Gender and Identity in Genesis: The Subject and the Other* (London: T&T Clark, 2019).

78 우택주, “사회학적 관점으로 해석한 바벨탑 사건(창 11:1-9): 도시문명 비판의 신학”, 복음과 실천 29-1 (2002.3), 107-131.

79 Tryggve Mettinger, *The Eden Narrative: A Literary and Religio-Historical Study of Genesis 2-3* (Winona Lake: Eisenbrauns, 2007).

인역을 바탕으로 한 창세기 주석이 관심을 끈다.⁸⁰ 그리고 문학사에 관심을 두는 독일의 게르츠(J. C. Gertz)가 창세기 원역사에 대한 주석서를 출간하였는데, 그는 원역사를 고대 근동의 문헌들의 문맥 안에 놓고 해석한다.⁸¹ 비록 창세기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성서에 대한 퍼포먼스 비평(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이라는 방법까지 등장하고 있다.⁸²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연구자들이 사용한 방법론을 요약해보면 보수적이며 정경적인 관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문학적 관점이 다음을 차지하고, 그리고 빈도수가 많지 않지만 흥미로운 사회학적 비평, 수사 비평, 여성 신학적 비평, 이야기 비평 등 현재까지 학계에 소개된 다양한 공시적인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을 알 수 있다.⁸³ 창세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물들을 살펴본 결과, 1970년대 이후 시작된 해석학적인 흐름의 변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역사비평적인 분석 논문보다는 본문 해석을 통한 다양한 의미 산출에 더 중심을 두는 공시적인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니 역사 비평적 방법이 갖고 있는 해석학적 한계성(비정경화의 위험)과 일반 학문분야들(구조주의, 상징주의, 사회학 등)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능주의가 해석학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⁸⁴

80 Susan Brayford, *Genesis*, Septuaginta Commentary Series (Leiden: Brill, 2007). 창세기에 대한 다양한 담론에 대하여: Craig A. Evans, Joel N. Lohr, and David L. Petersen (eds.), *The Book of Genesis: Composition, Reception, and Interpretation* (Leiden: Brill, 2012).

81 Jan Christian Gertz, *Das erster Buch Mose(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8). 참고, Andreas Schule, *Die Urgeschichte(Genesis 1-11)* (Zürich: TVZ, 2009).

82 방기민, “성서 퍼포먼스 비평과 성경 번역 - 제임스 맥시(James A. Maxey)의 연구를 중심으로”, 『성경 원문 연구』 (2020.10), 218-237. 이 방법론은 원래 성서가 쓰인 사회가 구술문화를 가진 사회임을 재조명하는 방법론이다. 이에 그 전제는 성서를 말하고 듣는 문화 속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David Rhoads,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What It Is and How It Works”,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72 (2013.12), 78-109. 이 밖에 본문사이의 상호 연관성(intertextuality), 수용사(reception history) 등의 방법론도 제시되고 있다.

83 강성열, “한국의 구약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구약논단』 63집 (2017년 3월), 121-124.

84 이형원, 『구약성서 비평학 입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232-237. 기능주의에 따르면 성서해석이란 성서가 신앙 공동체와 다양한 문화 내에서 어떻게 기능했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문

4. 연구 과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창세기와 관련된 해석학적인 과제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을 관찰할 때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의 상충적인 관계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⁸⁵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양자가 모두 나름대로 본문 연구에 기여한 바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본문을 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역사비평 방법들이 기여한 바는 본문이 전승되어 내려온 과거에 대한 검증 및 재건 작업에 있다. 하지만 말씀 선포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시적인 입장에 선 유대교와 기독교는 속성상 이런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반해 이성적인 시각에 중점을 둔 역사비평학자들은 나름 자유롭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창세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우리는 본문의 역사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대해 유대교와 기독교는 창세기의 계시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⁸⁶ 창세기는 증거를 바탕으로 기록된 역사적인 문헌이 아니라 오래 전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의 이야기를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 재구성한 문헌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문 안에서 불가피하게 역사성과 계시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해석할 때 두 요소의 날

명과 상황에는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85 조지프 블랜킨소프, 윗글(2006), 14, 320. 블랜킨소프는 성서 본문들을 통시적으로 읽는 것과 공시적으로 읽는 것이 모두 정당하고 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본문의 최종 형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랜 역사적 과정의 결과로 생겨난 내적 조직에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시적인 연구는 통시적인 연구와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될 수 없다. 참고, David M. Carr, *Reading the Fractures of Genesis: Historical and Literary Approach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86 브레바드 차일즈, 윗글(1998), 31-37.

카로운 상호 대립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균형적인 조화를 추구할 과제를 안고 있다.⁸⁷ 오늘날 독자들은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이야기 층을 분석적으로 나누고 제각기 별개로 해석하는 것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고, 점점 더 무엇이 이런 다양한 이야기 다발들을 하나의 문학적 그물망(Networking), 즉 하나의 본문으로 만드는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종 본문 이전 단계에 대한 관심과 최종 본문에 관심을 두는 관점을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차일즈는 본문 해석을 화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역동적이면서도 상호 관계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과정으로 이해한다.⁸⁸ 그럴 경우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보다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한 성서 해석들을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창세기 본문 전승에서 우선적이며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는 유대교의 해석학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⁸⁹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는 유대교의 해석을 등한시 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이 부분을 보충한다면 창세기 본문의 해석을 보다 더 풍성하게 도출할 수 있다.⁹⁰

87 장 루이 스카, 윗글, 335. 조지프 블렌킨소프, 윗글(2006), 320.

88 B. S. Childs, "Critique of Recent Intertextual Canonical Interpretatio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5 (2003), 175.

89 Dirk U. Rottzoll(Ed.), *Rabbinischer Kommentar zum Buch Genesis, Studia Judaica* (New York: de Gruyter, 1994).

90 J. Ebach, *Gott im Wor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7), 96. 저자는 역사비평적인 연구 방법론이 지녔던 한계를 유대 랍비해석 방법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그것은 최종본문에 대한 정확한 본문관찰과 광범위한 질문, 존중과 자유가 공존하는 해석방법이다. James L. Kugel, *Traditions of the Bible: A Guide to the Bible As It Was at the Start of the Common Er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5. 결론

과거 200년 동안 창세기는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한 역사비평적인 분석의 대상으로서 구약 성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원천 자료의 기원이 되었다. 동시에 창세기에서 시작된 비평방법은 여타 성서에도 적용되어 다양한 담론들을 생성해내기도 하였다. 되돌아보면 창세기를 비롯하여 오경 형성 과정을 다룰 때 그 배후에서 시대적인 배경도 영향을 미쳤다. 역사주의가 한창일 때는 통시적인 방법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후 저자보다 독자가 중요시됨으로써 창세기를 해석할 때 다양한 공시적인 비평 방법들을 적용하게 되었다. 어쨌든 오랫동안의 연구 시간이 지나 우리는 본문이 계시적인 성격도 갖고 있지만, 그 반면에 역사적인 성격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해석학적으로 무엇이 주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통시적이든 공시적이든 시대정신에 맞추어 창세기 본문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 고든 웬햄, 「창세기」 (박영호 역), (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0). 원제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aco: Word Books, 1983).
- 박요한 영식, 「창세기 1(1-25), 2(25-50)」 (서울: 성서와 함께, 2006).
- 배희숙, “하나님의 형상과 땅의 통치(창 1:26-28): 인간의 본질과 과제에 대한 새 관점”, 「장신논단」 49-2 (2017년 6월), 61-83.
- 빅터 해밀턴, 「창세기 I(창 1-17)」 (임요한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6). 원제 V. Hamilton, *The book of Genesis(1-17)* (Grand Rapids: W.B. Eerdmans, 1990).
- 유윤중, “창세기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대구의 문학적 역동성과 한글 번역”,

- 「Canon&Culture」 12-2 (2018년 10월), 77-104.
- 장 루이 스카, 「모세 오경 입문」 (박요한 영식 옮김), (서울: 성바오로, 2009), 125-127. 원제 J. L. SKA, *Introduction à la Lecture du Pentateuque* (Bologna: Centro Editoriale Dehoniano, 1998, 2000).
- 조지프 블렌킨소프, 「모세오경-성경의 첫 다섯권 입문」 (박요한영식역), (서울: 성서와함께, 2006). 원제 Joseph Blenkinsopp, *Pentateuch* (New York: Doubleday, 1992).
- 하경택, 「정경적 관점에서 본 창세기 1」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3).
- 하계상, “노아의 만취와 그 관련사건(9:20-27)에 대한 재고”, 「구약논단」 74집 (2019년 12월), 136-159.
- Arnold, Bill, “The Holiness Redaction of the Premeval History”,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9-2 (2017), 483-500.
- Blenkinsopp, J., “Abraham as Paradigm in the Priestly History in Genesis”, *Journal of Biblical Liturature* 128-2(2009), 225-241.
- Brayford, Susan, *Genesis. Septuaginta Commentary Series* (Leiden: Brill, 2007).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98).
- Christoph Dohmen/Günter Stemberger, *Hermeneutik der Jüdischen Bibel und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Kohlhammer, 1996).
- Ebach, J., *Weltentstehung und Kulturentwicklung bei Philo von Byblos* (Stuttgart: Kohlhammer, 1979).
- Gertz, Jan Christian, *Das erster Buch Mose(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8).
- Hoopen, Robin B. ten, “Genesis 5 and the Formation of the Primeval History: A Redaction Historical Case Study”,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9-4 (2017), 177-193.
- Jacob, 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Verlag, 1934).
- Noth, M., *Überlieferungsgeschichte des Pentateuch* (Stuttgart: Kohlhammer, 1948).
- Rhoads, David,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What It Is and How It Works”,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72 (2013.12), 78-109.

- Rottzoll(Ed.), Dirk U., *Rabbinischer Kommentar zum Buch Genesis, Studia Judaica* (New York: de Gruyter, 1994).
- Sarna, Nahum. M., *Genesis* (Philadelphia: JPS, 1989).
- Seebass, Horst, *Genesis I Urgeschichte*(1:1-11:2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6).
- Seters, John van, *Prologue to History. The Yahwist as Historian in Genesi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2).
- Soggin, J. Alberto, *Das Buch Genesis: Kommentar* [Aus dem Ital. übers. von Thomas Frauenlob...], (Darmstadt: Wiss. Buchges., 1997).
- Von Rad, G., *Das erste Buch Mose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 Wénin, A., *Studies in the Book of Genesis Literature, Redaction and History*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Leuven: University Press, 2001).
- Westermann, C., *Genesis BK 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 Witte, M., *Die biblische Urgeschichte Redakt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 Beobachtungen zu Genesis 1,1-11,26* (Berlin: Walter de Gruyter, 1998).
- Yee, Gale A., "Gender, class, and the social-scientific study of Genesis 2-3", *Semeia* 87 (1999), 177-192.
- Zenger E.,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6).

검색어

창세기

오경

아브라함

공시적 비평

역사와 계시

Achievements and Task in the Study of Genesis

Hyung Youn

Ruhr-University

This article reflects on the past achievements of the study of Genesis, investigates its recent studies, and proposes a direction for future study. For 200 years, the Korean Society of Old Testament Studies has examined the process of the composition of Genesis with great depth. The society has provisionally recognized its various sources. Different techniques have been derived to analyze these sources. Through literary, form, and redaction criticism, the organization has discovered that the composite process of Genesis is very complicated. Against the excessive form of historical criticism, a new trend has emerged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reader's position. Moreover, the reception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Genesis has reached a turning point. In particular, synchronic criticisms, which attribute more importance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reader than the author, have been adopted. Genesis has not been the center of concern in recent studies, displaced by scholars' focus on the study of the Pentateuch. The themes of recent studies vary widely. In future studies of Genesis, the sharp contrast between history and revelation should be harmonized, and Jewish interpretation also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Genesis

Pentateuch

Abraham

Synchronic criticism

History and Revelation

- 투고일: 2021년 3월 21일
- 심사일: 2021년 5월 1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8일